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0.25~28)

### 1. 한일 관계 관련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<sup>1)</sup>

- 스가(菅) 관방장관은 “전후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오늘날의 한일 관계가 있는 것” 이라고 하면서, 한국 측의 책임 하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표명
- o 스가 관방장관은 “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법부도 존중하는 것이 대원칙이며, 다시 한 번 (한국 측이) 원점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” 고 주장<sup>2)</sup>
- 한편 관방장관은 “단, 한국도 ‘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’, ‘어떤 형태의 대화’ 라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” 라고도 발언

#### 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NHK는 “관방장관의 발언은 24일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(24일) 당시 전달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염두에 둔 것” 이라고 하면서, 한국에서 일본과 대화를 모색하려는 견해(분위기)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<sup>3)</sup>

### 2. 한일 정상회담 관련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모테기(茂木) 일본 외무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과 관련, “강제징용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” 라는 인식을 표명<sup>4)</sup>

1) 「韓国側に日本との対話模索の雰囲気も 菅官房長官」 『NHK NEWS WEB』(2019. 10. 27).

2) 「菅氏、韓国側の変化指摘 「話し合いの雰囲気にも」 『静岡新聞』(2019. 10. 28).

3) 각주 1의 NHK. 및 「菅長官「韓国も話し合いをする雰囲気」 『産経新聞』(2019. 10. 28).

4) 「茂木外相 “首脳会談実現は「徴用」問題での韓国側対応次第」 『NHK NEWS WEB』(2019. 10. 25).

-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모테기 외무장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응을 촉구

\* 외무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“협정을 통해 정해진 내용과 다르다” 고 주장<sup>5)</sup>

### 3. 포토레지스트 수출 관련

#### □ [동향]<sup>6)</sup>

-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JSR과 신에츠화학공업은 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.
- JSR은 10월 28일 중간결산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포토레지스트의 대 한국 수출과 관련, “특별히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. 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출하(수출)하고 있다” 고 하면서,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.
- 신에츠화학공업도 “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에 필요한 절차가 늘어났지만,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” 고 하였음.
- 경제산업성은 “군사전용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수출 안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” 는 방침

5) 「首脳会談の環境、韓国側が整備を、茂木外相。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10. 26).

6) 「輸出管理強化の「レジスト」 メーカー2社は韓国への輸出継続」『NHK NEWS WEB』(2019. 10. 28).